

교육원 출범·비구니회 구성·재단법인 추진

법상종 종단 중흥 나섰다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이 교육원을 출범시켜 승려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비구니회를 구성하는 등 종단 중흥에 나섰다.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맞는 종단위상 찾기에 부심하는 법상종은 인재양성 방안을 세워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법상종은 먼저 종단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해 10월 말 교육원을 출범시킨다. 교육원 출범은 정통 '교종 종단'을 표방하고 있는 법상종의 위상 찾기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법상종은 평택 총무원에서 부정기

적으로 치렀던 승려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승가고시를 거쳐 법제제도를 정비해간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이번 법제제도 정비는 종단개혁의 의미도 갖고 있다. 법상종은 승려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시범적으로 8월 24-26일 안성 쌍미리사에서 종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또 비구니 조직을 활성화해 종단사업의 주축을 담당케 한다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법상종은 올 3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국비구니회 구성을 결의한 데 이어 10월부터 전국비구니회 조직을 본격 가동시킨다. 전국비구니회는 그동안 미진했

던 종단 노인복지사업과 청소년 포교를 분담한다.

법상종은 종단운영의 합리화, 투명화를 위한 '로드맵'도 실천 중이다. 첫 번째 단계로 법상종은 지난해 12월 종단 사단법인화를 매듭지었고, 두 번째 단계인 10월부터는 재단법인화도 추진한다.

법상종은 사단법인화를 통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종단 운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재단법인화로 종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재단법인화는 연말 이후 가시화될 종단 수익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종단 재정 마련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사업과 수익사업 추진도 가시화하고 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것은 노인복지 관련사업. 먼저 평택 무봉사 4만평 부지에 320평 규모 건물 두동과 건축을 위해 납골당 사업을 위해 건립했으며, 다음 단계로 무의역 노인 수용 시설, 청소년 수련관, 고시원 등도 세워질 예정이다.

법상종은 해월 총무원장의 잔여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는 10월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또한 법상종은 내년 봄 총무원청사를 무봉사로 옮겨 개원한다. **강유신 기자**



법상종 종도연수 교육이 8월 24-26일 안성 쌍미리사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맨 왼쪽)이 9월 14일 울릉군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울릉도 '나비' 이재민에 자비를

조계·진각종, 구호물품·지원비 전달

조계종과 진각종이 제14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릉도의 수해복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울릉도에는 9월 6-7일 437.1mm의 빗물이 쏟아지면서 주택 165동이 전파 또는 침수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은 9월 14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재경울릉군 향우회 김기수 회장에게 압력전기밥솥 200개(3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울릉도 구호물품 전달은 9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마지막으로 유시한 것이다. 구호물품은 전달식 직후 트럭을 이용해 포항을 거쳐 배편으로 울릉군청에 전달됐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은 "이번 울릉도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물품 전달은 입적하신 법장 대종사께서 입원료로써 울릉

도 주민의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던 것이었다"며 "스님께서는 울릉도 주민들이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구호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진각종(총리원장 회정)도 9월 9일 포항교구청을 통해 1차 수해복구지원비 1000만원을 울릉도에 전달했다. 또 9월 12일에는 서울, 대구, 포항 등 7개 교구청과 심인당에서도 자발적으로 수재민 돕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진각종은 공문을 통해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진각종조 회장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가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며 "어느 때보다 진각종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울릉도 일부지역은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현재 통신, 상수도 공급, 교통이 두절된 상태다. **김원우 기자**

8차 한·중·일 우호교류 한국대회

10월 24~25일 부산 범어사 일대서

제 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범어사와 삼광사 일대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9월 8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제 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장소 및 행사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10월 24일 오후 4시 롯데호텔에서 3국 교류위원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리는 제 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는 오후 6시 30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환영만찬회가 열린다.

이어 10월 25일 오전 10시 부산 범어사에서 3국 불교대표자들과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평화기원법회가, 오후 2시부터는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홀에서 '인류사회의 발전과 3국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가 개최된다.

또 한국불교 및 전통문화공연이 25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한중일대회는 10월 25일 낮 12시 롯데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문화관광부 장관 오찬회를 끝으로 회향한다. **김원우 기자**



승광사 대홍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이 9월 10-11일 대홍사 보현전에서 열렸다.

승광사·대홍사 신도임원 연수교육

조계종 승광사(21교구) 대홍사(22교구) 신도임원 및 지역불교지도자 연수교육이 지난 9월 10-11일 양일간 대홍사 보현전에서 열렸다.

본말사 신도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교육은 강의와 주제토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이 펼쳐졌다.

연수교육에 앞서 입적사에서 대홍사 회주 보현 스님은 "신도임원은 지

역불교를 이끄는 선봉장으로 수행정진에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는 포교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계종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조계종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란 주제의 강의에서 "조계종 종현 중흥"을 소개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금강경 독송"과 "간화선 참구"를 제시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우수 교양대 준 종립대로 격상

태고종 실태조사 계획

태고종이 종단신하 사찰과 스님, 신도가 운영중인 불교교양대학 실태조사에 나선다.

태고종은 최근 총무원회의를 갖고 불교교양대학 운영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고종은 불교교양대학 정비사업을 통해 이들 불교대학 중 시설과 여건이 갖추어진 곳은 '준 종립대학'으로 인가하고 이 학교 졸업자에게도 출가자격을 줌으로써 종단에서 추진중인 선교육 후득도 제도의 정착을 앞당기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이 밖에 종립대학으로 인가 받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양대학도 학사일정, 학교 정관, 학생 현황, 학생증과 수료증 양식, 대학장 및 교수현황 등의 행정편의와 각종 홍보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들 교양대학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양대 졸업자에게 2급 포교사 자격증 발급 및 정포교사 시험 응시 자격과 동방불교대학 2학년 편입시험 응시자격 부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태고종 산하 불교교양대학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교구총무원이나 총무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원우 기자**

스리랑카 피해지역 지원

태고종(총무원장 운산)과 태고종 단사간행위원회(위원장 수월)가 지난 해 쓰나미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와 와지라시리아에 1만달러를 지원한 데 힘입어 9월 1일 요새제 1등과 컴퓨터교육장 1동이 신축됐다.

와지라시리아 재건봉사 지원은 태고종과 태고종사간행위원회는 4월 4일 스리랑카에서 '남아시아 지원회'를 설립하고, '남아시아 지원회'를 통해 '와지라 재건'을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태고종과 태고종사간행위원회는 성금 34,493,590원과 물품 300kg, 현금 5000달러를 1차 지원한 데 이어 8월 9일 2차로 5000달러를 지원했다. **김원우 기자**

본원종 창종 기념법회

대화 스님 총무원장 재임

본원종(총무원장 대화) 창종기념법회가 9월 9일 서울 연화정사에서 열렸다. 부총정 대종 스님과 동종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전종도들이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본원종은 이날 제5대 중앙종회를 구성해 총무원장 대화 스님 등 9명의 각 원의 원장스님을 재선출하고 안산 통일사 주지 대원 스님을 새 감찰원장에 임명했다. **강유신 기자**

미륵종 대구경북교구

총무원장에 왕인 스님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9월 9일 거제 건성암에서 미륵종 대구경북교구 총무원장 임명식을 봉행했다. 이날 대구 경북교구 총무원장에는 왕인 스님, 총무부장에는 법인 스님, 감찰부장에는 원각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또한 미륵종은 이날 중앙교육원 행사교육 교수사에 고봉, 법일, 도선, 해초 스님을 임명했다. **강유신 기자**

수맥과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화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의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 75,000원 문의(02)741-4477

오마니 반메움 건강벨트

축복의 벨트! 성공의 벨트! 지혜의 벨트!

음악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한다는 오마니 반메움 건강벨트가 불교 법구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3불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벨트다. 또한 일반벨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벨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멜토에너지까지 발산되는 천연가족으로된 고품격 고급벨트로 만사 행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 75,000원 문의(02)741-4488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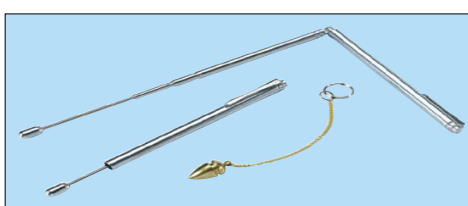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배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나 가지가 없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처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풀리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돈을 버는등, 수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이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과 감정 개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 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업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영양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



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몇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쑤다. 수맥탐지기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급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기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속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진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기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주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 65,000원 문의(02)741-4477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니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닦쳐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남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 25,000원 문의 (02)741-4485